Weekly
FX Economi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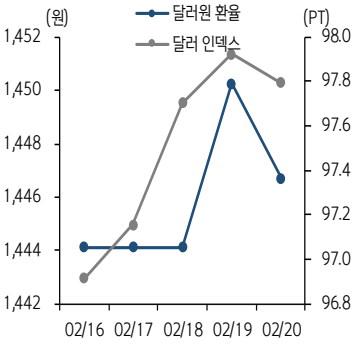
2026-02-23

내비게이터와 익스플로러를 아시나요?

FX Talk & Insight : 금주 1,440~1,460원 전망

설 연휴가 끝나자 국내 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달러-원 환율 상승하며 1,450원대 터치.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감 노출된 한편 연준의 금리인상 선택권도 거론되며 미 달러 반등. 반도체 수출 급증이라는 반사 이익에도 급성장하는 AI 산업의 명암을 글로벌 시장은 주시. 과거 IT붐 회고할 경우 산업 성장과 개별기업 도태 아래 고평가 논쟁 불가피. 한은 금리동결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대법원 위법 판결로 인한 트럼프 관세정책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시

외환시장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440	1460
달러엔	154.0	156.0
유로달러	1.171	1.186

설 연휴를 편히 쉬면서 보냈더니 살도 찌고 한국 증시도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다. 엔화 강세와 기술주 고평가 우려 등으로 뒷걸음질 치던 달러화도 이란과 미국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한편, 고용이 예상보다 호전된 가운데 연준의 분위기가 다소 강경해지며 반등하였다. 이에 따라 환율이 다시 1,450원대를 넘보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수위가 낮아진 미달러와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로 상단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각 탓인지 1,460원대에 대한 저항감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물론 우리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낙수 효과를 일정 부분 누리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중심에는 미국 AI 산업의 가파른 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Ramp에 따르면 오픈 AI의 주도 아래 미국 기업의 AI 도입률은 1월 현재 46.8%이고, 대기업의 경우 55.7%에 달하고 있다. 이는 AI 시장이 캐즘을 넘어 급속한 확장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가파른 성장과 치열한 경쟁이 공존하게 될 것임을 뜻한다. 미래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와 자금조달이 뒤따르지만, 냉정한 승자독식으로 새로운 포식자 후보가 등장할 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 기술 산업에 대한 우려와 견제를 가져왔다면, 최근 엔트로픽은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며 오픈 AI를 위협하는 등 연관 기업들의 수익성과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과 도태는 새로운 시장의 성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지난 1990년대 치열한 웹 브라우저 전쟁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비록 지금이야 최종 후발주자인 구글의 크롬이 전세계를 장악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선도자인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가 시장을 다 차지한 상태였고, 이후 MS의 익스플로러가 급성장하며 2000년대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독식자가 되었다. 물론 닷컴 버블이 터지며 넷스케이프는 이제 존재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몰락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비게이터와 익스플로러가 치열하게 경쟁했던 1990년대 후반이 당시 기술산업과 나스닥의 절정기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지금의 AI 전쟁이 그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구조적인 경기사이클 변화와 자산시장의 붐-버스트를 앞서 본 만큼 연준의 통화정책은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AI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며 경제-산업별 양극화는 뚜렷해질 것이므로 AI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연준내 분열도 극심해질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명분 삼아 트럼프에 대항해 독립성을 지키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질 듯하다. 비록 물가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달리기는 했지만,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한 FOMC 의사록 결과는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면 이번 금통위에서 한은의 금리인하 선택권은 일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한편, 아직까지는 높은 환율로 인한 인플레 전가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연준의 금리인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인식이 강해진다면 한은도 금리인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2.50%의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며, 오히려 시장은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심경 변화 여부를 따지려 들 것 같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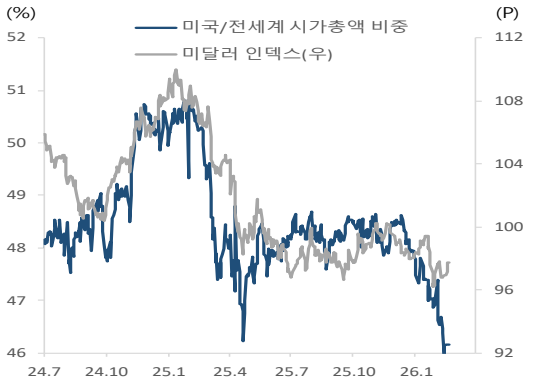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내비게이터와 익스플로러를 아시나요?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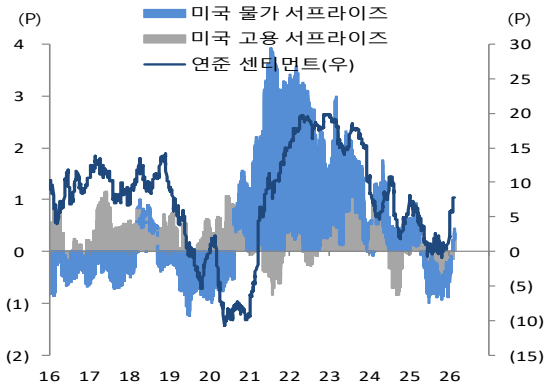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가 호전되며 미국으로의 집중화 다소 분산되는 모습. 트럼프에 대한 신뢰 저하 및 미국 주식 고평가 우려 등으로 미달러 다소 후퇴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 엇갈린 가운데 FOMC 의사록 통해 연준내 분열 확인. 독립성 고수 등과 맞물려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당분간 불가피

글로벌 증시의 상향 평준화로 물러선 미달러



보수적으로 U턴하는 듯한 연준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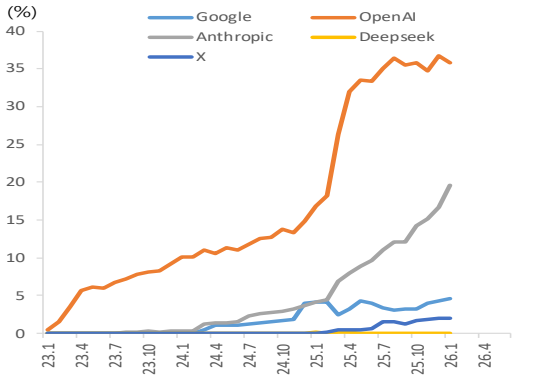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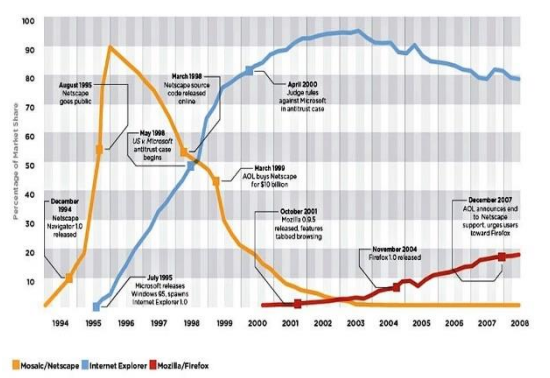
빠르게 영역 넓혀가는 엔트로픽으로 AI 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덩치 키우기 가속화. 수익성 논쟁과 더불어 규모 확대 기대 등이 공존하는 구간

웹 브라우저 전쟁 전개되었던 1990년대와 유사한 상황. 승자독식의 리스크 피할 수 없으나 경쟁 구간에서 미국 경제와 증시의 활황기 진입

점차 치열해지는 미국 AI 시장 판도



경쟁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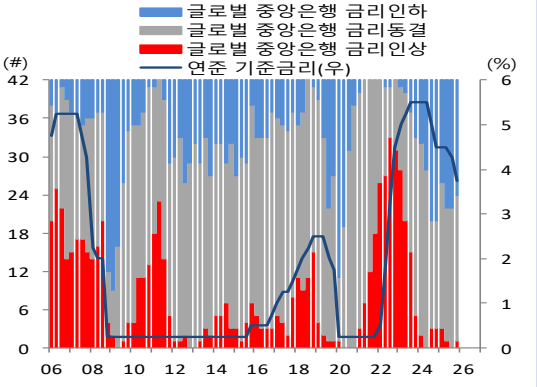


자료 : Google,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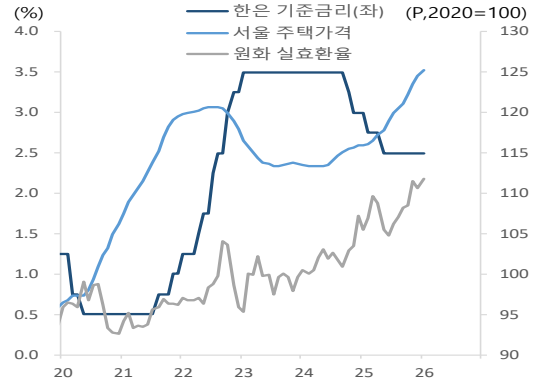
최근 호주는 물가 상승으로 금리를 올리는 등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점차 차별화. 금리인하 기조 마무리와 금리 동결 우위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 강화되는 한편 고환율 경계감 아직 벗어나지 못해 한은 금리동결 기정사실. 시장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

인하에서 동결로 이동하는 글로벌 중앙은행



부동산과 환율 관리에 치중하는 한국은행



자료 : Bloomberg, Refinitive,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내비게이터와 익스플로러를 아시나요?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2-24-2026 0:00	US	제조업수주	Dec	1.00%	2.70%	86
2-24-2026 6:00	SK	PPI 전년비	Jan	--	1.90%	66
2-24-2026 6:00	SK	소비자심리지수	Feb	--	110.8	61
2-24-2026 10:00	CH	1년 대출 프라임 금리	24-Feb	3.00%	3.00%	55
2-25-2026 0:00	US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Feb	87.5	84.5	92
2-25-2026 9:30	AU	CPI 전년비	Jan	3.70%	3.80%	76
2/26/2026	SK	BOK Base Rate	26-Feb	--	2.50%	97
2-27-2026 8:30	JN	도쿄 CPI (전년대비)	Feb	1.50%	1.50%	73
2-27-2026 22:30	US	PPI 최종수요 MoM	Jan	0.30%	0.50%	93
2-27-2026 22:30	US	PPI (식품 및 에너지 제외) MoM	Jan	0.30%	0.70%	70
3-01-2026 9:00	SK	수입 YoY	Feb	--	11.70%	71
3-01-2026 9:00	SK	수출 YoY	Feb	--	33.90%	92
3-01-2026 9:00	SK	무역수지	Feb	--	$8740m	63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451.0	210.3
고가	1,451.6	210.3
저가	1,444.5	209.4
종가[1)]	1,446.6	209.5
전일비	1.1	-0.1
평균환율	1,448.7	210.0
NDF(1M)	1,445.1	
거래량	199(억불)	356(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446.70	2.60
JPY/KRW	933.07	-2.42
EUR/KRW	1,703.60	-7.02
GBP/KRW	1,949.36	-3.28
AUD/KRW	1,024.39	0.68
CAD/KRW	1,057.07	-3.16
USD/JPY	155.05	0.04
EUR/USD	1.1784	0.0011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2)]	전일비
1Y	2.882	-0.012	2.385	0.00
2Y	3.074	-0.032	2.560	-0.02
3Y	3.192	-0.034	2.715	-0.03
4Y	3.262	-0.036	2.825	-0.03
5Y	3.314	-0.036	2.905	-0.05
7Y	3.385	-0.039	2.935	-0.04
10Y	3.440	-0.043	2.910	-0.04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79	+0.01
통안 1년	2.59	-0.00
통안 2년	2.99	-0.04
국고채 3년	3.14	-0.04
국고채 5년	3.39	-0.04
국고채 10년	3.54	-0.05
국고채선물(3년)	105.14	-0.03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40	0.00	2.41%
3M	-470	0.00	2.34%
6M	-930	-7.00	2.35%
1Y	-1,532	-22.00	2.42%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3)]	전일비
1Y	3.51	0.026	3.47	0.023
2Y	3.48	0.019	3.30	0.014
3Y	3.50	0.003	3.28	0.002
5Y	3.65	-0.004	3.36	-0.013
10Y	4.08	0.000	3.66	-0.012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5,808.53	+131.28	+2.31%
미국 DOW	49,625.97	+230.81	+0.47%
중국 상해종합	4,082.07	-51.95	-1.26%
일본 NIKKEI 225	56,825.70	-642.13	-1.12%
영국 FTSE 100	10,686.89	+59.85	+0.56%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66.48	+0.05
금 (선물)	5,059.30	+83.40
3M TERM SOFR	3.66	+0.00
3M EURIBOR	2.02	0.00
KOR 5Y CDS	22.66	+0.23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